

바스티앙 비베스 작품에 나타나는 소통
- 『Elle(s)』, 『Le Goût du chlore』, 『Dans mes yeux』를
중심으로-

- I. 서론
- II 소통에 대한 열망
- III. 독자와의 소통
 - 1. 열린 결말
 - 2. 생략
 - 3. 사랑에 대한 일상적 성찰
- IV. 남녀 간의 소통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서정행, 이송이

초 록

바스티앙 비베스(Bastien Vivès)는 프랑스 그래픽노블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작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스티앙 비베스 작품 『그녀들』, 『염소의 맛』, 『내 눈 안의 너』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의 특성을 연구하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소통의 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에서 주로 그려내는 것은 청춘의 사랑과 남녀 간의 소통, 즉 사랑에 빠진 남녀 사이에 소통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1984년생인 젊은 작가는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어 성인으로 거쳐 가는 과정에 걸쳐진 청춘 남녀의 풋사랑의 이야기를 본인과 본인 주변인의 이야기를 하듯 일상적인 어투로 그려내고 있다. 독특한 경험담이나 특출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평범한 일상을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풀어나가며 독자와 감정을 교류하고, 열린 결말을 제공하여 독자와 감정을 소통해 나간다. 작가는 독자와의 감정 소통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세 작품 속 남자주인공들은 여자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황스러운 속에 어리둥절하게 남겨진다. 바스티앙 비베스는 본인의 서투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랑에 대한 세 작품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남녀 간의 소통의 이야기인 것이다.

주제어: 소통, 열린 결말, 감정 묘사

I. 서론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태를 띄고 있는 그래픽노블(graphic novel)이 등장하였다. 그래픽노블은 짜임새 있는 문학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만화의 한 장르이다. 그래픽노블은 문학과 예술성이 강한 사실적 표현을 특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작가주의적 그림 스타일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표현기법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된 만화라는 장르를 예술작품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¹⁾

바스티앙 비베스(Bastien Vivès)는 프랑스 그래픽노블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드로잉 도구 각각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스토리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내는 드로잉 테크닉적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문헌성이 두드러지는 스토리를 짜임새있게 전개해나가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그는 소설과 결합한 만화인 그래픽노블의 영역에서 유럽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198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이며, 사진작가이자 영화 세트 디자이너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술적 자극이 충분히 제공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즐겼던 그

1) 성완경, 「프랑스 만화의 이해 및 한국에서의 수용 문제」,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6.1., 2004, p.161. : 중요한 것은 프랑스 만화의 문화적 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약 30년 이상 전부터 만화는 가치 있는 문화 산물로서 문학의 하위 장르로 비하되던 위치를 벗어났다. 이것은 앞서 말한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도 읽혀진다. 실제 이 축제가 그런 변화에 기여한 점도 사실이다. 이 만화축제는 정말 대단한 미디어적 대중적 성공을 거뒀다. 이 축제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만화페스티벌로서 미국 샌디에고의 코믹스 컨벤션(Comics Convention)과 비견된다. 그러나 앙굴렘 페스티벌이 유일한 만화페스티벌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평균 매주 한 번꼴로 각종 만화관련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통계다. 이런 것을 통해 현상의 타당성을 연역해 볼 수 있다. 대중의 힘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타당성 말이다. 20년 전부터는 문화부에서 만화작가들과 출판사들에게 장학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바로 야심적인 이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런 특별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수십여 권의 앨범들이 나오고 있다. 만화박물관의 제정도 물론 정부의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자랐으며, 페닝겐 대학(École supérieure d'arts graphiques Penninghen)에서 그래픽 아트를 전공하고, 고블랭 대학(Gobliins, L'école De L'image)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였다. 다수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그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 (raconter des histoires)”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²⁾ 이를 추구하기 위해 만화(la bande dessinée)³⁾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다.⁴⁾ 24세에는 친구들과 함께 만화 아틀리에 “망자리 (Manjari)” 를 설립하고 활동하였다. 이후 2007년 『그녀(들)(Elle(s))』을 시작으로 재능있는 젊은 작가로 급격히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대표적으로, 『염소의 맛(Le Goût du chlore)』은 2009년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발견 작가” 상을 수상했고, 2011년 영국 “가디언” 지가 뽑은 “2011년 7월의 그래픽 노블” 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폴리나(Polina)』는 만화작가 최고의 영예인 2011년 만화 비평가협회 대상, 2011년 만화 전문 서점상, “르푸앙(Le point)” 선정 2011년 올해의 책 20선, “르푸앙” 만화상 최종 후보, RTL 방송 문학상 최종 후보, 2012년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앨범상 후보에 올랐다.

2)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만화를 하겠다” 를 정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처럼 미술 공부를 해왔었고, 그 와중에 애니메이션 공부도 하게 됐다. 그러다가 나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매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됐다.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것은 한 장으로 압축해 짧게 해야 하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처 다 못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혼자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국 종이만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뭔가를 하기 위해 의도해서 공부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매체를 정하게 됐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2555>)

3) 윤보경, 「디지털 화면에 구현된 한국의 웹툰과 프랑스 만화의 차이점」,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3, p.93. : 프랑스어권에서 그려진 띠 (La bande dessinée 만화)라 일컬어지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 매체는 문학의 또 다른 형태라고 인식되며, 그 때문에 만화가 ‘임혀지는’ 과정에 집중한다.

4) 이수진, 「만화에서 영화로의 전환 adaptation」, 『프랑스학연구』 42., 2007, p.465. : 대중예술의 장르 간 융합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경계마저 모호해진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표현수단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은 예술 본질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바스티앙 비베스의 작품에서 주로 그려내는 것은 청춘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어 성인으로 거쳐 가는 과정에 걸쳐진 청춘 남녀의 풋사랑의 이야기를 일상적인 어투로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3부작으로 『도살자(La boucherie)』, 『염소의 맛』, 『내 눈 안의 너(Dans mes yeux)』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⁵⁾ 허나 본고에서는 작가는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받게 되는 당황스러움과 고통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는 『그녀(들)』, 『염소의 맛』, 『내 눈 안의 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도살자』는 에피소드별로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바스티앙 비베스는 여러 가지 드로잉 도구의 특성을 잘 활용한 표현 기법으로 유명한 작가이며,⁶⁾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듯 한 다양한 영화적 장치를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있

5) Ce livre clôt une sorte de trilogie, après Le Goût du chlore et La Boucherie. C' est toujours un peu la même histoire, mais avec une temporalité différente et une autre manière de conter. Le Goût du chlore est une version romancée, dans laquelle on se demande ce qui s' est passé exactement. Dans La Boucherie, on cherche à comprendre la relation amoureuse et la rupture, on voit s' il y a des conclusions à tirer. C' est plus cynique. Dans mes yeux se concentre sur les faits, ceux qui concernent la fille. Qu' est-ce qu' elle disait? Quelle était son expression à tel moment? On zappe donc tout le reste, notamment le garçon. On ne regarde qu' elle. 이 책은(내 눈 안의 너) 『염소의 맛』, 『도살자』와 함께 일종의 3부작으로 되어있다. 항상 약간 같은 이야기인데, 시간성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르다. 염소의 맛은 소설같은 형식인데, 정확히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하게 된다. 도살자에서는 사랑의 관계와 단절에 대해서, 그것이 이끌어내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더 시니 크하기도 하다. 『내 눈 안의 너』는 소녀와 관련된 사실들에 집중하게 된다. 그녀가 뭐라고 했지? 그 순간에 그 표현은 어땠지? 모든 나머지, 특히 소년은 무시된 채 오직 그녀만 바라보게 된다.

(<http://www.bodoi.info/dans-les-yeux-de-bastien-vives/>)

6) 신체의 유연한 곡선을 붓펜으로 흘러가듯 그려낸 듯한 『폴리나』가 대표적인데, 흑백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선의 굵기만으로 긴장감 넘치는 드로잉 기법을 뽐낸다. 『내 눈 안의 너』에서는 칼라 크레용(le crayon de couleur)을 이용해 화려한 색깔을 감각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그녀와 일종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작가의 드로잉 특성, 표현기법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⁷⁾ 그러나 본고에서는 작가의 드로잉 기법에 대해 관찰하기 이전에, 작가가 진정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문학적 특성, 스토리텔링 기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녀(들)』, 『염소의 맛』, 『내 눈 안의 너』에서는 소위 “쌘을 탄다”⁸⁾고 하는 연애 초기의 감정들이 자세히 그려진다. 세 작품 속에서 남자주인공은 아직 사랑이 뭔지, 세상이 뭔지도 모른 채 사랑의 시작과 쓰라림을 겪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사랑의 설레임과 고통을 통해 소년기 혹은 청년기로 부터 점점 성인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바스티앙 비베스 특유의 절제된 그림체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감정 표현은 작가가 주로 다루고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사이 연령대의 남녀 간 서투른 사랑의 설레임, 풋사랑의 쓰라림을 그려내기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청년의 사랑에 대한 세 작품을 연대기별로 그려나가면서 작가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찰한 흔적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찰을 통해 청춘 남녀의 사랑, 사랑이 주는 설레임과 고통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작가가 깨닫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쉽게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작가 특유의 서술적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7) 이수진, 「문화콘텐츠 기획의 다양성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9.2., 2007, p. 180. : 만화는 최근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적용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예술장르로 손꼽힌다. 그 표현 특성상 이미지와 말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시청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며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화는 문화의 대중화코드와 만나면서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 “쌘”의 사전적 정의는 “남녀가 서로 밀고 당기며 교제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이며, “쌘을 탄다”는 “관심가는 이성과 잘돼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II. 소통에 대한 열망

바스티앙 비베스가 대학을 졸업한 후 데뷔한 첫 작품인 『그녀(들)』에서는 자유분방한 소녀를 좋아하는 수줍은 소년이 주인공이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유분방한 연애편을 가진 18살 단짝친구인 두 소녀, 항상 남자를 유혹하는 인기녀 샤를로트, 큰 가슴으로 남자들의 눈길을 끄는 알리스. 이 두 소녀와 진지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르노와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바스티앙 비베스는 이 작품에서 10대 사춘기 소녀들의 열정적이지만 끊임 없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탁월하게 그려냄으로써 여성 작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염소의 맛』에서 척추 굽음증을 앓는 남자주인공은 치료를 위해 수영을 배우게 되고, 수영장에서 만난 전문가같은 수영 솜씨를 지닌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푸른 수영장 물 속 풋사랑의 설레임이 주인공에게 콧등이 찡한 염소의 맛으로 다가오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바스티앙 비베스는 여러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2007년 『그녀(들)』, 2008년 『염소의 맛』 이후 2009년에 나온 『내 눈 안의 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받는 작품이다. 남자주인공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여자주인공의 모습만 그려져 있고 그녀의 대화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도서관에서 만난 두 남녀가 서로 친근해지는 사랑의 시작에서부터 그녀의 뒷모습이 아련한 사랑의 결말까지 오로지 남자주인공의 시선만으로 그려지는 독특한 연출법을 이용한 실험적 방식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남녀의 사랑을 그린 위 세 작품의 공통점은 첫째, 줄거리의 중심축은 여자주인공을 이해하고 그녀와 소통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소통에 실패한 채 남겨지는 남자주인공의 이야기이다. 둘째, 세 작품 속 남자주인공은 모두 한결같이 여자주인공의 말, 행동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셋째, 세 작품 모두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을 그린 컷, 남자의 시선으로 여자의 행동을 쫓아가는 컷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 눈 안의 너』 속 모든 장면은 남자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통점은 작가의 경험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가 스스로 밝히듯이, 그는 열다섯 살이 되기까지 놀이터에서 이성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소 숫기 없는 청년기 시절을 지나면서 이성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심리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채 그녀들의 말, 손짓, 몸짓 등을 자세히 관찰한 흔적이 세 작품 속에 녹아있다. 인터뷰에서 작가는 여자들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강했다고 고백하며, 여자는 항상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런 미스터리한 면에 대해 계속 생각했던 기억을 작품 속에 쏟아놓았다고 이야기했다.⁹⁾

사랑을 앓고 있는 청춘남녀 간의 소통에 대한 작가의 견해는 『염소의 맛』 에필로그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는 수영장 물 속에서 그녀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알 수 없는 입모양 그림이다.(그림1) 물 속에서 그녀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고 단지 그녀의 입모양으로 추측해야하는 답답함, 모호함을 통해 이성의 마음을 읽지 못해 애타는 청년의 마음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수줍은 풋사랑을 시작하는 남자주인공에게 공감하는 독자가 첫사랑의 알싸한 추억을 되새기며 그녀의 입모양을 따라하고 애타게 그 말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만드는 작가의 위트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바스티앙 비베스는 이후 인터뷰에서, 『염소의 맛』 속 그녀가 한 말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2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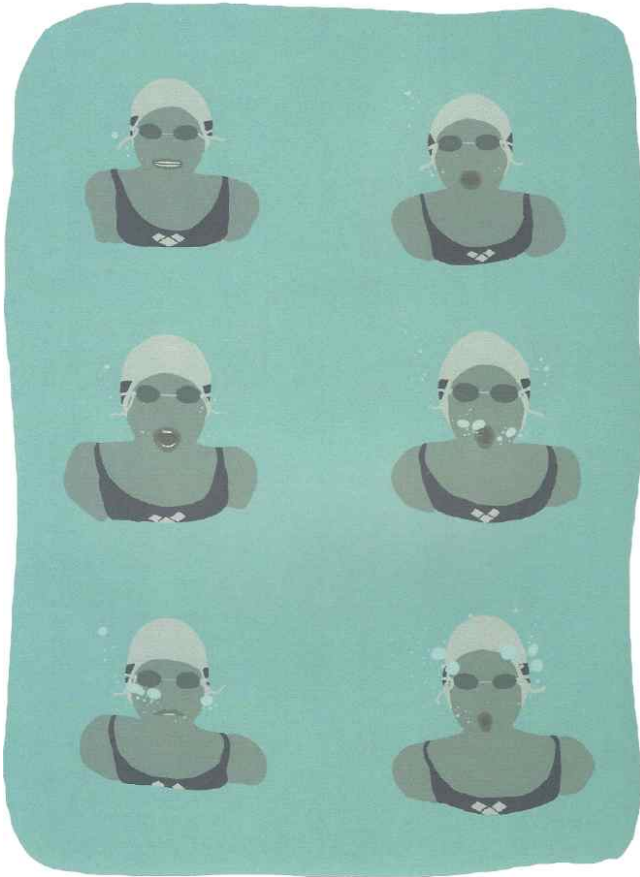


그림1: 물 속에서 말하는 그녀의 입모양¹⁰⁾

이처럼 작가가 여성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은 바로 여성과의 '소통 (communication)'을 갈망하기 때문이다.¹¹⁾ 소통이란 한 사람이

10) 바스티앙 비베스, 이해정, 그레고리 립펜스 역, 『염소의 맛』, 미메시스, 2010. p. 138.

11) 김정선, 「시각적 의사소통의 이해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18., 2004, p. 31. : 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은 라틴어의 '나누다, 함께 하다, 분배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communicare'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다. 신(神)이 자신의 덕(德)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열(熱)이 물체에서 물체로 전해지는 것과 같이 분여(分與)·전도(傳道)·전위(轉位) 등을 뜻하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서 타인의 행위나 정신 상태 또는 감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개인이 특정 문화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¹²⁾ 작가의 열망을 간직한 세 작품 속 남자주인공은 모두 여자주인공에게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거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썸을 타고, 더 나아가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허나, 그들은 모두 작가의 청년기 시절 어설픈 모습을 닮아 여자주인공의 말, 행동,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비교적 초반 작품인 『그녀(들)』, 『염소의 맛』에서는 미스터리한 여자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남자주인공이 어리둥절해하는 표정과 당황하는 시선이 수차례 드러난다. 세 작품 속 남자주인공은 여자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녀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만 반응하다가 결국엔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 남자주인공은 더욱 당황하게 된다.

소통은 언어적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언어에 의한 소통은 언어능력인 문법규칙에 관한 지식과 언어사용에 의한 방법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행해지며, 그것의 성공 여부는 말의 내용이나 이야기 방법, 생각의 논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적인 언어’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 이입 정도에 의존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메르비안(Mehrabina)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소리가 38%, 말이 7%, 표정이 35%, 태도가 2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¹³⁾ 바스티앙 비베스의 작품 속 모든 남자주인공은 여자주인공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과의 언어적 소통에 실패하는 모습은 이미 <그림1>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미 언급하였듯이, 세 작품 모두

말이지만, 근래에는 주로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인다. 어원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과 공동, 공유의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12) 김우룡, 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 2004. p. 20.

13) 김성희, 정미강, 이미영, 김재호, 「한·미·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비언어적 표현 (동작 및 행위표현) 을 통한 문화의 이해」, 『디자인학연구』, 20.5., 2007 p. 103.

에서 남자주인공의 시선으로 여자주인공의 행동을 일일이 따라가며 관찰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언어적 표현에 의한 소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자주인공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섬세하게 한 컷 한 컷 담아낸 장면에서는 남자주인공이 그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 변화라도 열심히 관찰하는 애절함이 드러난다. 즉, 남자주인공이 그녀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타게 그녀의 단어 한마디, 눈썹의 일그러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관찰하는 모습을 작품 대부분의 지면에 할애함으로써 작가는 그녀와의 소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III. 독자와의 소통

바스티앙 비베스는 청춘남녀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든지, 왜 그녀는 떠나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찰한 기록이자 성찰과정으로 세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세 작품을 통해 사랑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낱낱이 그려내고 소통의 어려움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다양한 서술적 전략을 통해 독자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1. 열린 결말

독자가 작품 속 남자주인공과 감정을 교류하고 공감을 일으키게 되는 첫 번째 서술적 전략은 마지막 장면, 열린 결말에서 두드러진다. 바스티앙 비베스가 청춘남녀의 사랑을 다룬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작가의 뛰어난 유머 감각이 돋보이고, 사랑을 앓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과 소통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녀(들)』의 결말부분에서 남자주인공은 계속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던 그녀의 급작스러운 키스를 받게 된다. 기습적인 키스에 대한 놀람과 동시에 기쁨의 감정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녀와

그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뒷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남자주인공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다. <그림2>에서 나타나듯이, 적어도 그 키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그녀의 심리가 어떤지 추측할 여지조차 갖지 못한 채 그는 어리둥절하게 그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한두 번의 키스만으로 남자주인공이 그녀에게 바라는 소통, 그녀와 교류하고자 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마치 키스가 사랑의 종착점인 것처럼 두 사람이 행복하게 부둥켜안은 채 사랑을 확인하는 진부한 해피엔딩을 바라는 독자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인 결말일 수밖에 없다.



그림2: 『그녀(들)』 마지막 장면¹⁴⁾

14) 바스티앙 비베스, 박정연 역, 『그녀(들)』, POPTOON, 2009. p. 96.

『염소의 맛』의 결말에서는 여주인공이 사라진 후 남자주인공은 홀로 수영을 하다가 원하던 잠영(잠수해서 물속을 나아가는 수영 방법)에 성공하게 된다. <그림3>에 나타나듯이, 이 때 남자주인공의 표정은 반쯤 가려져 있어서,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몰라서 어리둥절한 건지, 잠영을 성공한 데 만족한 건지,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된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을 제공한다. 작가는 『그녀(들)』에서처럼 『염소의 맛』에서도 남자주인공처럼 끝까지 독자가 그녀의 심리상태,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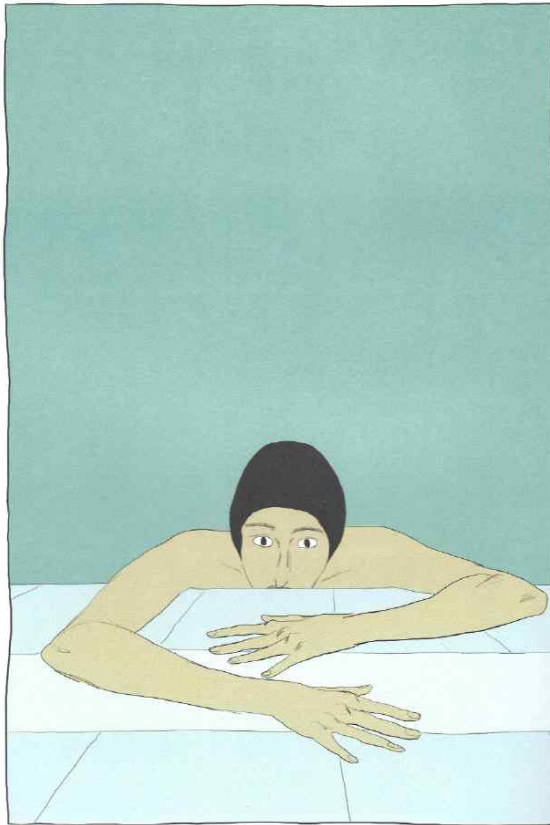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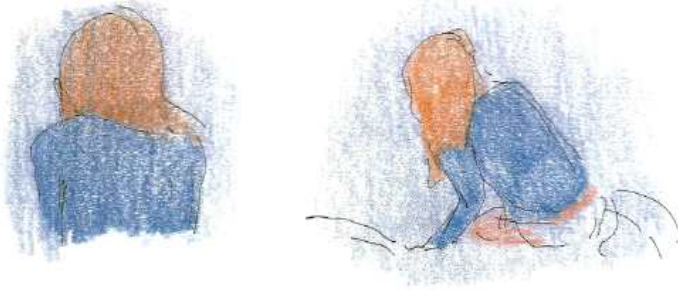


그림3: 『염소의 맛』 마지막 장면¹⁵⁾

앞의 두 작품들과 달리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는 『내 눈 안의 너』의 마지막 장면은 남자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주인공의 눈에 비친 여자주인공의 뒷모습이다. <그림4>은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녀가 쭈그린 채 뒤돌아 누워있는 모습을 남자주인공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녀가 왜 남자주인공의 침대 위에서 이별을 고했는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암시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품 전반에 걸쳐 두 남녀 사이에 갈등을 증폭, 해소하는 등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독자 또한 그녀의 심리상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말을 맞닥뜨리게 된다. 한밤중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그녀가 첫 차 다니는 시각까지 머무르다 가겠다고 변덕을 부리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녀가 떠나버리는 이별의 고통, 그리고 사랑의 존속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공존하게 된다. 뒤돌아 있는 그녀의 표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에 독자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된다.

15) 바스티앙 비베스, 이해정, 그레고리 림펜스 역, 『염소의 맛』, 미메시스, 2010. p.132.



알았어,
첫차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게.



그림4: 『내 눈 안의 너』 마지막 장면¹⁶⁾

남자주인공의 어리둥절한 표정, 알 수 없는 그의 표정, 그녀의 뒷모습 등을 마지막 장면으로 그려냄으로써 작가가 던지는 열린

16) 바스티앙 비베스, 그레고리 림펜스 역, 『내 눈 안의 너』, 미메시스, 2013. p. 133.

결말¹⁷⁾은 오히려 작품에 대한, 또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증폭시킨다. 혼한 해피엔딩 서사구조에 맞추어진, 그녀가 한 말, 행동에 대한 해석 제공, 남자주인공과 독자가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에 대한 해소 혹은 반전의 기회가 되는 비밀의 폭로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끔찍한 오해로 인한 결별 혹은 극단적인 이별의 장치가 아니더라도 그와 그녀 사이에 생성할 오해와 비밀의 암시와 같은 새드엔딩 서사구조에 맞추어진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일말의 추측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강한 복선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독자의 해석에 따라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작가는 결말에서 이를 숨김으로써 남자주인공처럼 끝까지 독자가 그녀의 심리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시 책을 정독하고, 다시금 생각에 잠기도록 만드는 장치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2. 생략

독자의 공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두 번째 서술적 전략은 ‘생략’과 관련된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오히려 감추고 줄이는 생략의 기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녀(들)』에서는 모든 주인공의 이름, 나이, 직업, 심지어 성격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제공되고 비교적 직접적으로 남자주인공의 심정이 그려진다. 남자주

17) Je voulais montrer qu' on ne sait pas si ce mec se monte un film, si elle a un mec ou pas. Un jour, elle ne vient pas, c' est tout. On ne sait pas si elle est morte, ou pas du tout. C' est la vie, en fait. On n' est pas du tout maitre des événements. Mais je me suis posé la question : j' achète cette BD et ça se finit comme ça, je me dis : merde ! Mais pour moi, l' intérêt du bouquin réside dans ces petits moments de mise en scène quand les personnages se rencontrent. 나는 이 청년이 영화를 찍는 것인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그녀가 죽었는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 사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지배해나갈 수가 없다. 나 스스로 질문해보았다: 내가 이 만화를 사고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혼잣말을 하겠지? 젠장! 그러나 나로서는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등장인물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는 이 작은 연출의 순간에 있다고 본다.

(<http://www.zoolemag.com/2013/01/zoo-45-interview-de-bastien-vives-version-longue.html>)

인공이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 사고방식을 직접 발화하고,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 이후 작품인 『염소의 맛』에서는 주인공의 이름, 나이, 직업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의 성격을 드러낼만한 대화 또한 등장하지 않으며, 수영을 해야만 하는 남자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할 뿐이다. 그의 감정은 직접 발화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고 찾아보는 시선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은 끝끝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직접적인 표정을 명확히 읽어낼 수조차 없다. 『내 눈 안의 너』에서는 남자주인공은 처음부터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즉, 남자주인공의 외모, 정체, 심리 뿐 아니라 그의 발화내용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첫 작품에서 작가는 주인공의 감정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의 신변과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작품부터 점점 작가는 주인공과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직접적인 발화의 표현을 통하지 않고서도 독자와 주인공이 감정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듯하다.¹⁸⁾ 『염소의 맛』에서 생략적 기법을 활용해 독자와의 감정적 소통을 이루어낸 작가는 『내 눈 안의 너』에서 생략적 기법을 주되게 활용하는 실험적 시도를 한다. 각 페이지마다 남자주인공의 눈과 같이 배치된 가로로 된 두 개의 칸, 이것은 마치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주인공의 눈 속 장면처럼 그려지는데, 오롯이 그녀만 보일 뿐 주변 세상은 흐릿하고 그녀만 명확하게 남아있다. 『내 눈 안의 너』는 작가가 주인공의 신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의 성격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려내지 않아도 독자가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에게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작가의 자신감으로 비춰진다. 독자는 남자주인공이 되어서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남자주인공처럼 대답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 이전 작품

18) 장진영, 박혜리, 「만화 읽기가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6., 2014, p447. : 만화는 글과 그림, 칸 등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을 감정이입함으로써 자신을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만화에 몰두하게 된다.

들에서 자신감을 얻은 작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이용한 실험적 방식을 사용했다. 작가는 독자가 남자주인공이 되어 설레고 기다리고 아파하고 행복하고 안타까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실제로 독자는 마지막 장면 속 열린 결말을 맞닥뜨린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남자주인공인양 안타까워하며 애를 태우게 된다.

3. 사랑에 대한 일상적 성찰

작가가 독자와의 감정적인 소통을 이루어내는 세 번째 전략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¹⁹⁾ 사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중의 하나가 된다. 작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 맞닥뜨리는 사랑의 시작과 설레임, 썸을 타기도 하고 혼자 착각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 작가의 독특한 경험담이나 특출한 인물의 이야기인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결국 우리, 즉 “나”의 이야기이다.²⁰⁾ 작가는 본인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주로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데, 1984년 출생인 작가가 2007년, 2008년, 2009년에 출간한 세 작품은 작가가 20대 초반의 청년이기에 가능한 작품이다. 젊은 작가이기에 젊은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공감되게 표현하고 있다.²¹⁾ 24세가 되어서야

19) 장진영, 「한국만화에서 느끼는 ‘재미’와 ‘현실’의 연관연구」,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36., 2014, p250. : 만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린 것 못지않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여준 결과는 만화를 통해 느끼는 재미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20) 김수정, 「만화 독자층 다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2015, 2), pp. 45-46. :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일상에 무료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타인과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고민거리나 일상생활을 이해해준다는 것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 작가들은 직접 경험한 일상에서 느낀 점을 만화 소재로 활용하고 이를 접한 다양한 독자들은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21) Depuis mon enfance, je dessine tout le temps des filles ! Dès l'âge de huit ou neuf ans, je recopiais les nanas dans les magazines, et même les personnages féminins du Petit Spirou. Ensuite, à 20 ans, comme on ne pense qu'aux filles, il était logique de les mettre en scène ! Dans dix ans, je ferai des histoires avec des gosses, ce sera chiant... 여렸을 때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사랑에 서투른 20대 초반 청년작가는 늘 여자만 생각하고 여자에게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니, 사랑의 설레임과 아픔을 일상처럼 겪어왔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극적인 사건이나 화려한 채색과 수려한 드로잉 기법을 남발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덩덤하게 그려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해 보인다.

IV. 남녀 간의 소통

바스티앙 비베스는 열린 결말, 생략의 기법을 통해 일상적인 삶 속의 사랑 이야기를 덩덤하게 풀어내면서 독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이해하고, 주인공과 감정을 교류하게 만들었다. 사랑에 대한 성찰의 기록인 세 작품을 통해 작가는 독자와 진정한 감정적 소통에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오히려 여성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녀와 소통해나가기에는 아직 서투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위의 세 작품에서 작가의 뛰어난 관찰력을 엿볼 수 있으나,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을 세밀하게 관찰한 것을 자세히 묘사하며 작품에 반영할 뿐 끝내 여성의 진정한 심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며, 작가 또한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독자의 공감을 증대시키고 감정적 소통을 위해서 열린 결말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덧붙여 작가는 남자로서 진정으로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짐작할 수 없는 마음에 차마 결말을 짓지 못한 듯한 여지를 남겨둔다. 바스티앙 비베스는 풋사랑의 아련함을 담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이 본인의 서투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부터, 나는 항상 소녀들만 그렸다! 8살, 9살쯤부터, 나는 잡지 속 아가씨들을 베껴 그렸는데 Petit Spirou의 여자 등장인물들조차도 베껴 그리곤 했다. 이후 20살에는 오직 여자만을 생각했으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은 계속 젊은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마 그것은 지겨울 것이다.

(http://next.liberation.fr/culture/2012/06/12/bastien-vives-as-du-strip_825784)

사랑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이유가 바로 남자와 여자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결론 내린다.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한동안 외국에 사는 한 소녀와 MSN이나 Skype를 통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 컴퓨터에 저장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 본인이 그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눈치 채게 된 경험을 이야기한다. 시간이 지난 후 MSN이나 Skype에 기록된 본인과 그녀와의 대화를 읽고, 그때서야 작가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를 설명한다.²²⁾ 작가는 남자와 여자사이에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꽤나 힘들다는 것을 독자에게 피력하고 싶었을 것이다. 처음 작품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는 작가는 작품을 한편 한편 완성해 나가면서 사랑이 왜 어려운지, 왜 그토록 아픈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해 나간다. 그리고 세 작품을 통한 성찰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이 이유임을 독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2) Par exemple, j' ai vécu une histoire avec une fille, qui s' est terminée. Elle vivait à l' étranger, alors nous passions pas mal de temps à tchater sur MSN ou Skype. Je souhaitais raconter quelque chose autour de cette relation, alors j' ai relu l' historique de nos conversations. Je me suis rendu compte que je n' avais pas vraiment compris ce que nous échangeions... Il y avait plein de choses qui, avec le recul, prenaient une autre signification. C' était très bizarre de revoir un truc comme ça... Un peu comme avec les photos : elles sont figées hors du temps, ce qu' elles montrent n' existe plus dans la vie. 예를 들어서, 이미 끝난 관계인 한 소녀와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외국에 살았고,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MSN이나 Skype에서 수다를 떨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녀와의 대화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다시 읽었다. 나는 우리가 나누고 있던 이야기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거리를 두고 보면, 다른 의미를 지닌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약간 사진과도 같았다: 사진은 시간 밖에 고정되어 있고,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더이상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http://www.bodoi.info/dans-les-yeux-de-bastien-vives/>)

V. 결론

바스티앙 비베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교한 스토리텔링 속에 드러나는 디테일하고 섬세한 감정 묘사이다. 주인공의 아리송하고 복잡 미묘한 심리변화를 그림 속 표정의 미세한 변화로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작가의 탁월한 능력은 화려한 색채나 독특한 드로잉기법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독자가 스토리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작가의 탁월한 감정 묘사 능력은 특히 청춘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그린, 풋사랑의 애잔함을 담은 『그녀(들)』, 『염소의 맛』, 『내 눈 안의 너』 세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작가는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상대의 속내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녀의 손짓, 몸짓, 표정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지만, 결국 그녀가 하는 말과 행동의 속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애가 타는 소통에 대한 열망을 남자주인공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사랑에서 튼 주인공의 소통에 대한 간절함은 마지막 장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녀(들)』과 『염소의 맛』의 마지막 장면 속 어리둥절한 남자주인공 표정, 『내 눈 안의 너』 속 그녀의 뒷모습은 결국 그녀와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한 채 전혀 그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없는 주인공의 심정을 한 컷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여운으로 남긴 채 세 작품은 모두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세 작품 속에서 드러난 열린 결말은 독자의 다양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두 작품을 읽는 독자가 여자건 남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누구나 해당 작품의 남자주인공이 되는 감정이입의 상태를 경험하게 만든다. 『그녀(들)』에서 독자는 그녀의 키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녀의 속내가 어떤지,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는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작품을 정독하게 된다. 『염소의 맛』의 에필로그에 그려진 수중 속 그녀의 입모양을 보면서 독자는 그림을 따라 입을 오므리고 펼쳐가며 애타게 그녀가 발화한 문장을 따라가 보는 것이다. 『내 눈 안의 너』에서는 독자가 남자주인공이 되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녀의 웃음에 화답하게 된다. 이

처럼 작가는 섬세한 감정묘사를 통해서 독자와 감정을 교류하고, 마지막 장면의 여운과 열린 결말을 통해서 독자와 감정 소통에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여자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입장에서 그녀를 관찰한 것,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 속에서는 여전히 서투르고 어색한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다. 세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완성해나가면서 작가는 주인공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려내지 않아도, 그의 성격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가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는 『내 눈 안의 너』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이용하여 남자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은 채 여자주인공의 표정, 대답, 움직임만으로 작품을 구성해나가면서 독자와의 소통에 성공하게 된다. 또한 독자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감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극단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작가는 이런 진부한 장치 없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려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을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풀어나가면서 사랑의 기쁨과 고통에 대해 섬세하게 감정묘사를 해내고 있다. 이처럼 열린 결말, 생략의 기법, 일상적인 삶 속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는 서술적 전략을 통해 작가는 독자와의 소통에 성공한 듯 보인다. 허나 세 작품 속 남자주인공이 그녀와의 소통에 실패하고 어리둥절하게 남겨지듯이, 그녀와의 소통은 여전히 작가에게 어려운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스티앙 비베스는 청춘작가답게 청춘남녀의 사랑을 일상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서툰 풋사랑의 두근거림, 설레임과 쓰라림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든지,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괴롭히는지, 왜 그녀는 떠나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찰한 기록으로 작품을 그려내고, 작품을 통해 사랑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 이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그녀(들)』, 『염소의 맛』, 『내 눈 안의 너』는 청춘 작

가의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소통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바스티앙 비베스 작품 속에 나타난 스토리의 서술적 전략, 문학적 특성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림에 심취해있었다고 말하는 바스티앙 비베스의 드로잉 기법이나 색채 활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작가의 독특한 작품 특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바스티앙 비베스, 그레고리 림펜스 역, 『내 눈 안의 너』, 미메시스, 2013.
- 바스티앙 비베스, 박정연 역, 『그녀(들)』, POPTOON, 2009.
- 바스티앙 비베스, 이해정, 그레고리 림펜스 역, 『엽소의 맛』, 미메시스, 2010.
- 김우룡, 장소원,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론』, 나남, 2004.
- 김수정, 「만화 독자층 다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2015, 2)
- 김성필, 「시각적 서사물로서 그래픽노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7.2., 2014, pp. 27-37.
- 김성희, 정미강, 이미영, 김재호, 「한·미·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비언어적 표현 (동작 및 행위표현) 을 통한 문화의 이해」, 『디자인학연구』, 20.5., 2007 p. 101-110.
- 김정선, 「시각적 의사소통의 이해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18., 2004, pp.29-44.
- 성완경, 「프랑스 만화의 이해 및 한국에서의 수용 문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1., 2004, pp.143-176.
- 윤보경, 「디지털 화면에 구현된 한국의 웹툰과 프랑스 만화의 차이점」,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3, pp.91-119.
- 이수진, 「만화에서 영화로의 전환 adaptation」, 『프랑스학연구』

- 42., 2007, pp.455-480,
- 이수진, 「문화콘텐츠 기획의 다양성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9.2., 2007, pp.179-199.
- 장진영, 박혜리, 「만화 읽기가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연구」, 『만화에 니메이션연구』 36., 2014, pp.437-467.
- 장진영, 「한국만화에서 느끼는 ‘재미’ 와 ‘현실’ 의 연관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6., 2014, pp.227-253.
- Fresnault-Deruelle, Pierre, La bande dessinée, Armand Colin, 2009.
- Groensteen, Thierry. La bande dessinée : Une littérature graphique, Milan, 2005.
- Maigret, Éric. La bande dessinée : une médiaculture, Armand Colin, 2012.
- Peeters, Benoît. L'aventure des images. De la bande dessinée au multimédia, Editions Autrement, 2007.
- Robert, Pascal. Bande dessinée et numérique, CNRS, coll.《Les Essentiels d'Hermès》, 2016.
- Tilleuil, Jean-Louis. Lectures de la bande dessinée : Théorie, méthode, applications, bibliographie, Editions Academia, 1998.
- Vivès, Bastien. 『Dans mes yeux』, KSTR-Casterman, 2009.
- Vivès, Bastien. 『Elle(s)』, KSTR-Casterman, 2007.
- Vivès, Bastien. 『Le goût du chlore』, KSTR-Casterman, 2008.
- <http://www.bodoi.info/dans-les-yeux-de-bastien-vives/> (2016.10.1.)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2555> (2016.10.1.)
- <http://www.zoolemag.com/2013/01/zoo-45-interview-de-bastien-vives-version-longue.html> (2016.10.1.)
- http://next.liberation.fr/culture/2012/06/12/bastien-vives-as-du-strip_825784 (2016.10.1.)

ABSTRACT

About the Communication in Bastien Vivès -Focusing on 『Elle(s)』, 『Le Goût du chlore』, 『Dans mes yeux』

Seo, Jeong-Haeng. Lee, Song-Yi

This study aims to take a look at the esthetics of communication in Bastien Vivès. Bastien Vivès is the famous author of the graphic novel in France. Then this paper studies both of expressive properties and narrative strategy in Bastien Vivès 『Elle(s)』, 『Les goût du chlore』 and 『Dans mes yeux』 that have been recognized the series 'story of young love'. His characteristic style is the detail and delicate description of emotions in the visual expression and the narrative. His story is mainly about the love of the young(adolescent) and the communication of man and woman. Through these three books, he wants to describe how important the communication is to man and woman who are falling in love. He gives a talk about the pain of first love(and puppy love) with the simple structure like the freinds' casual activities. And with open-ending, he leaves something to the imagination for readers. This strategy evoke a feeling of first love in the readers. At these last scenes, a bond of sympathy is developing between readers. Finally, we have failed to communicate with her in first love.

Key Word: communication, open ending, description of emotions

서정행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embaumer75@gmail.com

이승이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baru@pusan.ac.kr

논문투고일 : 2016.10.30.
심사종료일 : 2016.12.01.
게재확정일 : 2016.12.01.